

### ◇ 100萬달러짜리 아이디어

세상에 100만달러짜리 구멍이라고 알려졌던 이 話題의 主人公은 美國의 한 大規模 製糖會社이다.

어느 제당회사는 角雪糖을 包裝하여 海外로 輸出하고 있었으나 배로 바다를 건널 때는 濕氣 때문에 變質함으로써 끝머리를 잃고 있었다.

그래서 社內 技術을 總動員하여 藥品을 쓰는 등 苦心했으나 妙案이 나오지 않고 있을 때에 어느 技能工이 포장된 封지에 바늘로 조그마한 구멍을 뚫었다. 그랬더니 습기 때문에 변질되는 일이 없어졌고 會社는 그에게 巨額의 賞金을 주었으며 그 額數가 자그마치 100萬달러라고 소문이 나게 된 것이다.

### ◇ 活字와 아내의 助言

우리나라 金屬活字의 發明은 史實이 證明하고 있으나 獨逸의 구엔베르크가 木型活字를 發明한 것은 우연한 아내의 助言 덕분이었다.

그는 聖職者로부터 바이블을 木版에 파서 冊으로 엮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러나 그대로 파다보니 한 목판에 같은 글자가 여러번 重複되는 것을 깨닫고 무슨 方法이 없나 하며 고심하다가 저녁을 같이 먹던 아내에게 목판을 새기려면 한판에 같은 글자가 무수히 나온다고 무심코 말했다.

그때 그 아내는 나무에 글자를 한자씩 새겨 적으면 어떻겠느냐는 답변이었다. 여기에서 힌트를 얻은 그는 글자를 木刻하여 文章대로 알맞게 실로 묶어서 油印함

으로써 손쉽게 바이블을 완성했다는 것이다.

### ◇ 베개와 橫財

日本의 어느 會社員이 生男 5個月이 되었으나 그 어린이가 유독 고집이 세어서 그러한지 머리가 삐뚜러지기 시작했다.

내외가 궁리한 끝에 누웠을 때 머리가 요에 직접 닿지 않는 베개를 만들어 보자는 데 뜻이 맞아 만든 것이 도너스型の 베개였다.



## 아이디어

## 教室

그들은 그 베개를 그 어린이에게 베어 주었던 바 신통하게도 제 머리 모양이 되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실을 社內의 特許管理士에게 相議하여 實用新案으로 出願하는 데 合意하였다.

그 후 特許廳에 出願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寢具메이커와의 사이에 實施契約이 成立되어 1個 當賣出額의 3%의 考案料를 叩박 叩박 받게 되었다.

놀랍게도 1年동안에 팔린 베개의 실시료는 170萬圓이 되었고 그 후에 그 고안은 300만圓에 팔렸다는 얘기이다.

### ◇ 주전자 뚜껑의 구멍

주전자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얻은 實用新案權이 두가지가 있

다. 어느날 잠기에 걸린 患者가 누어 있는데 머리맡에 놓여 있는 주전자에서 물이 끓은느라고 뚜껑소리가 요란하여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옆에 놓여 있는 어름끼기 송곳으로 주전자뚜껑에 구멍을 뚫었다. 그랬더니 끓는 물김이 그 구멍으로 빠지고 덜거덕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았다.

그뿐아니라 그는 實用新案權을 얻어 재미를 톡톡히 보았는데 어느날 이러한 주전자로 물을 끓이던 어느 青年이 손을 데었다.

그 후 그는 여기에서 奮發하여 研究 끝에 주전자의 구멍을 옆으로 뚫었던 바 김이 옆으로 새겨 되어 이를 實用新案으로 出願, 새로운 權利를 取得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國內에서 사용되고 있는 주전자뚜껑의 옆구멍은 한때 日本의 實用新案권이였다.

### ◇ 透明봉투와 特許

크리스마스나 年末年始가 되면 카드 대신에 透明봉투로 된 祝電이나 人事狀이 우리나라에서도 쓰여지고 있다.

봉투의 시초는 美國의 토마스 카라번이라는 打字手에 의하여 特許를 얻은 것이다.

그는 書翰에는 내용과 걸봉에 2重으로 受信人의 住所, 姓名을 써야 하는 불편을 느낀 나머지 생각해 낸 것이 봉투의 한가운데를 切取하고 거기에 封料券을 발라 봉투속의 서한에 쓰인 주소와 성명이 透視되도록 한 것이다.

그는 이 創案을 特許出願했고 설정된 權利는 賣出額 1%씩의 實施料를 받아 출부가 되었다는 얘기이다.